군산시, 탄소 복합재 소형어선 개발

다목적·어업용·낚싯배용 3척 운항 실증 착수 가볍고 연비 10% 향상

군산시가 탄소 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어선 운항 실증에 착수했다. 탄소 복합재를 적용한 소형 어선. 〈군산시 제공〉

군산시와 전북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가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 자유 특구에서 '탄소 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어선 운항 실증'에 착수했다.

탄소 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t(다목적 운송), 7t(어업용), 9t(낚싯배용) 총 3척이다.

최근 3t 선박 운항을 시작으로 6월에는 7t과 9t 선박을 추가해 어청도, 십이동파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 구역(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을 거친다.

또 실제 어업인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탄소 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어선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연비가 10% 이상 향상된 친환경 선박이다.

기존 FRP(강화플라스틱)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도 예상된다.

실증 운항을 통해 CFRP(탄소 강화플라스틱) 소재의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규제하고 있어 탄소 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건조 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 복합재 적용 어선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개발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수료식 후 자신이 개발한 가공품 브랜드 계획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농산물 가공품에 옷을 입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창업대상자 디자인교육 성료

"농산물 가공품에 옷을 입힌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예비 농식품가공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개발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체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이 없거나 기존 디자인의 포장 개선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가공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농가 자체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생들은 농산물에 담긴 상품의 가치와 신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브레인 스토밍,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창업자의 생각과 가치, 농가 개별 스토리를 바탕으로 고객감성에 맞는 브랜드를 기획했다.

이외에도 포장디자인 상품을 직접 전시하고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다.

진영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가공농업인의 특색있는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으로 생산품의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의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순창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건전 옥외광고 문화 조성 나서

옥외광고협회와 업무 협약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근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

정읍시가 지난 29일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불법 광고물 양성화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송기선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장.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옥외광고협회는 5월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년간 지역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된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호우, 눈사태 등의 악천후 발생 시 옥외광고물 시설물 피해 사전 예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시 장비와 인력 지원을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과 양성화를 위해 일제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한정된 행정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 발생 부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협회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남원시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전개한다.

남원시는 지난달 31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해 조기폐차 252대, 매연저감장치 88대의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또 오는 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2차 접수를 진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3.5t 미만의 5인용 승용 외)한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로 구매해도 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되며 연초 대상차량 3270대에 대해 안내장을 송부한 바 있다.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중이 높은 이동오염원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시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채소·시설원예 의무 자조금 납부해 주세요"

고창군, 농업인 참여 당부

고창군이 채소와 시설원예 농업인들에게 의무자조금 납부를 당부했다.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이다.

현재 의무자조금은 인삼, 배, 마늘, 양파,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떫은감, 복숭아 등 16개 품목에 지정돼 있다. 의무자조금 납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며, 사업 신청시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결정한다. 올 2월 기준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으로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전국 첫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 지차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 중 선정된 500명에게 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검진 비용 전부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외의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